력사그림책

현무의 비밀



제 2 부

먹구름 걷힌 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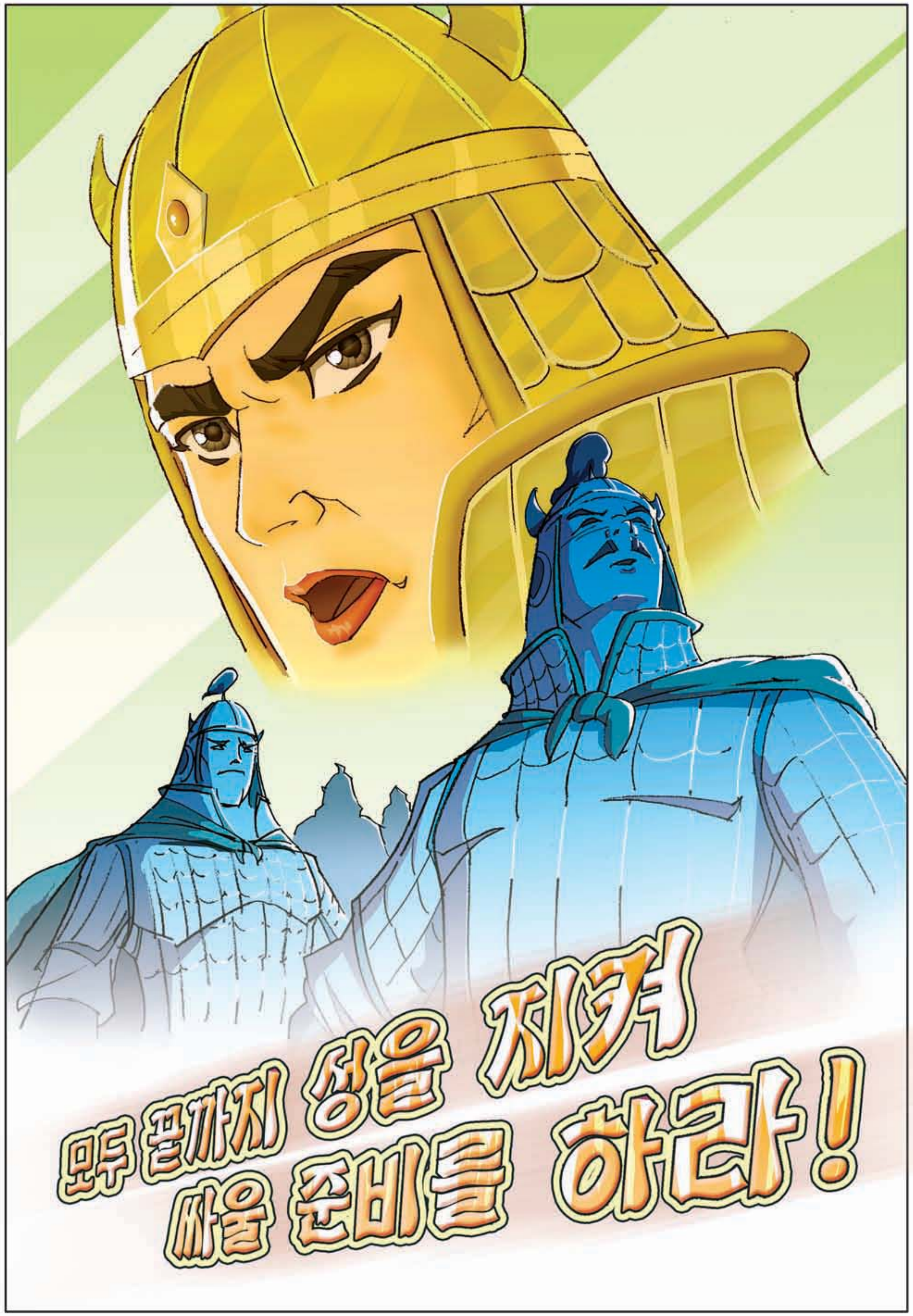
평 양 출 판 사
주체104(2015)년

나오는 사람들




성루에서
계수가 멀리에서 몰려드는 무리들을 보고있다.
도대체 우리 군사인가, 아니면 적인가?
저- 대왕님께서 여기 일을 자상히 알아오라고 분부를 하시여 이렇게 나왔소이다.
내시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계수는 여전히 몰려드는 무리들을 살피고있다.
소인의 짐작이기는 하오나 아마 … 적들인 것 같소이다.
추장님께서 연우와 발기가 서로 싸우다 지치게 되며는 어부지리로 군사를 보내 먹어치우겠다고 하시더니 마침내 오는 모양이구나. 흐흐흐…
만약 저게 적이라면 위태롭다. 지금의 형편에서도 어려운데 적의 지원군까지 온다면 사태는 수습하기 매우 어렵게 된다.
어쩐다. …


저- 제 짧은 생각이오나 지금이라도 발기에게 성을 내주고 잠시 피하여 남은 력량을 보존하는것이 어떻소이까?
내시가 계수의 속내를 타진해보느라 한마디 하였다.
뭐라구? 그것도 말이라구 하느냐?
발기에게 성을 내준다는것은 외적에게 성을 내주는것이 아니냐? 그건 되지도 않을 소리다.
아무래두 계수는 안되겠구나. 그렇다면…
내시는 계수를 꼬드기지 못하게 되자 조용히 자취를 감춘다.


모두 끝까지 성을 지켜
싸울 준비를 하라!


궁성안에서
그래 알아보았느냐? 지금 형세가 어떻더냐? 과인에게 사실그대로 이야기하라!
대왕폐하, 정황이 위태롭게 되였소이다. 지금 다른 외적들이 성안으로 몰려들려고 하옵니다.
적의 력량이 작은것 같지 않소이다. 기세를 보아 아마 파죽지세로 성에 들이닥칠것이오이다.


나도 알고있다. 그런데 그건 어떤 적들이라더냐?
글쎄… 잘은 모르겠소이다. 어쨌든 우리 증원군은 아니고 발기의 지원군인것 갈사옵니다.
발기의 지원군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이 성안에 그냥 계시다가는 위험합니다. 병법에두 줄행랑이라는것이 있는데… 저…
뭐라구? 그래 날더러 달아나라는거냐? 발칙하다!
대왕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대세를 봐가면서 제때에 몸을 피하는것이 상책이오이다. 대왕님께서 목숨을 보존하시면 후날에라도 다시 뜻을 이룰수 있지 않소이까? 빨리 몸을 피하셔야지 때를 놓치면 신상이 위험하게 될줄로 아뢰나이다.


저… 여차하면 제가 길을 탐문해보겠소이다.
연우는 아무 말도 없이 생각에 잠겨 한동안 그 자리에 서있었다.


저 말도 일리는 있다. 현재 정황에서야 뾰족한 수가 없지 않는가!
흥! 네놈을 유인하여 내가 고스란히 추장님께 잡아바치면야 왕을 잃은 고구려가 항복밖에 더 다른 길이…
내시의 음흉한 술책을 알리없는 연우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성밖 발기의 진
한편 발기가 새로 나타난 무리들을 보고있다.
엉? 군장! 저기 몰려오는 건 무슨 군사들인가? 군장은 모르는가?
아마 우리 추장님이 보내신 군사일거요!
뭐라구? 추장이 보낸 군사?
그렇소.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는가? 당신은 여직껏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는가?
당신이 제입으로 말하지 않았소? 지금 저 궁성안에 말고는 다른 군사들이 없다구 말이요.
그러니 누구의 군사들이겠소. 고구려군사들의 증원이 온다 해도 시간은 걸리겠으니 분명히 우리 추장님의 군사들밖에 더 있겠소?


나와 이미전에 그런 약속이 없었는데 어떻게 추장의 군사들이 나타났는가?
내가 소식을 보냈댔으니 추장님께서 아마 당신을 도와주러 보내셨을거요.


흐흐… 너두 연우두 끝장이다. 이럴줄 몰랐겠지. 우리 추장님은 너를 도와주는게 아니라 고구려를 먹자는거다. 이 곰갈이 미련한 놈아…
외군장의 속심을 모르는 발기는 좋아한다.
그렇단 말이지. 하-하, 역시 추장이 신용이 있구나.


우리 추장님이 보낸 군사를 맞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좋다! 당신이 먼저 가서 맞이해오라.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을 들이칠 준비를 갖추겠다. 추장이 보낸 군사들이 오면 힘을 합쳐서 성을 들이치자. 연우두 이젠 끝장이다.
그게 좋겠소. 여봐라! 우린 가서 대군을 맞이하자!


변방족 군장은 자기 부대를 거느리고 추장이 보낸 지원군을 맞이하러 간다.
뚜거덕- 뚜거덕-
성루에서
이놈들! 보느냐?
발기가 성앞으로 다가와서 소리친다.


이놈 연우 보는가? 우리에게는 지원군이 왔다. 너는 끝장이야. 계수도 듣거라. 늦었지만 연우를 버리고 성문을 열라. 그러면 너의 목숨은 살려두겠다. 그렇지 않으면 연우도 너도 다 죽여버리고 말테다.
우리는 설사 마지막 한사람이 남는다고 해도 끝까지 싸울것이다. 외적에게 굴복할 고구려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똑똑히 보게 될거다. 그때 가서 두고두고 후회해도 늦을것이다.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외적을 물리치는 싸움에 칼을 돌리라.


발기는 이를 부득부득 갈며 말머리를 돌리였다.
네가 아직두 속이 살았구나. 좋다, 어디 두고보자.


성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경당무사들과 백성들이 성을 바라보고있다. 거기에는 경당스승과 아지의 얼굴도 보인다.
할아버지, 왜 외적을 치지 않소이까?
덤비지 말거라. 형세를 보는중이다.
아뢰여- 저기 외적의 한 무리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소이다.


이랴-
나도 보고있다. 아마 적들이 뭔가 잘못 알고있는것 같다. 저걸 봐라, 싸울 차비가 아니지 않느냐. … 차라리 잘되였다.
이 기회를 리용하여 적들을 분산시켜 치자. 아마 정신을 못 차릴거다. 적들이 가까이 오면 은밀히 준비하고있다가 내 신호에 따라 숨돌릴새없이 치자.


알겠소이다!
아지야, 너는 성안으로 들어가야 하겠다. 이런 일엔 남정들보다 아녀자가 더 나으니라.
왜 그러시오이까?
적들 몰래 성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왔다는걸 성을 맡아보는 장수에게 알려라. 그리고 안팎으로 협공하잔다고 전해라. 네가 성에 가닿거들랑 신호로 불화살 한대를 날려라. 네 신호를 받구 우리가 공격하겠다.


음- 그러니까 제가 가서 우리가 왔다는것을 알려주어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앞뒤에서 적을 공격하여 적들이 정신차릴새없이 하게 하여야 한다는 말씀이겠소이다?!
이랴-
그래! 헌데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으니 성으로 가는 길에 각별히 조심해야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성에 꼭 가닿아야 한다.
걱정마시오이다.


숲속에서
경당무사들 한무리가 숲에 몰래 매복한다.
저… 대장님, 저기 오는 군사들이 추장님이 보낸 군사들이 아닌것 같소이다.


뭐라구? … 틀림없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다. 혹시 고구려 군사들일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
대장님, 저놈들이 우릴 보고… 저길 보시오이다. 저놈들이 달아나는것 같소이다.
그러면 그렇테지. 내 어쩐지 어수룩한 놈들이라고 봤어. 저놈들을 쫓아라. 저놈들을 치는것이자 곧 성안의 놈들을 치는거나 갈다.


공을 세우는자는 추장님께 알려 크게 상을 내리고 승급시켜줄테다.


대장님, 저길 보시오이다. 적들이 둘로 갈라지오이다.
역시 오합지졸의 무리들이다. 서로 살겠다구 갈라지는거다. 기세를 올리며 모조리 쳐라.
이놈들이 고구려사람들을 잘못 봤지. 어디 혼쭐 좀 나봐라!
매복한 경당무사들이 적들을 향해 일제히 화살을 날렸다.


으악-
복병이구나! 에익- 네놈들에게 속히우다니.


네놈들은 이 땅에서 한놈도 살아 돌아가지 못한다.
얏-
휘익-
적들은 많은 병력을 잃으면서도 수적우세를 믿고 계속 추격해왔다.


성으로 가는 길에서
성을 향하여 조심히 가던 아지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수군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였다.
뭐라구? 추장님의 군사들이 아니야?
그렇소이다.
그럼 큰일났구나. 그런줄도 모르고 남몰래 성문을 열어놨는데…
추장님은 《검은 족제비》에게 우리 손실을 극히 줄이자면 고구려놈들끼리 끝까지 싸우게 해야 한다고 전달하라 하셨소이다.
알겠다. 나에게 수가 다 있다.
네놈들이… 이러고있을 새가 없어. 빨리 알려야지. … 성문이 열렸으면 성이 위태롭다.
아-
딱!
아지가 조심조심 뒤걸음치다가 삭정이를 밟았다.


아니! 저년이…
야! 빨리 없애치워.


아지에게 달려든 놈은 무작정
칼을 휘둘렀다.
윙


와악-
얏-


저놈을 놓치면
안되겠는데…
뚜거덕-
아지는 칼부림하던 놈이 거꾸러지자 말을 타고
달아나는 다른 놈을 따랐다.


서라!-
서라!-
아니!-
아지가 놈을 따르는데 고구려기마군사들이 아지를 둘러싸고 체포한다.
넌 누구냐? 우리 선봉장님께 어서 가자!
날 놓아주시오이다. 금방 말을 타고 달아난 놈을 잡아야겠는데…


뚜벅-뚜벅-
선봉장님께 아뢰옵니다. 성문이 열려있어 나가 살피다가 수상한 녀인을 잡았소이다. 다른 한놈은 그만 놓쳐버렸소이다.
고구려기마군사가 벌어진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였다.


넌 누구냐? 어서 머리를 들어 나를 보아라!


아지가 아닌가?!


계수와 아지는 뜻밖에 서로 만나게 될줄 몰랐다.
아지, 아지가 아니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어떻게 여기엘?
아니?!- 그렇나이다. 그럼 선봉장이?


계수와 아지는 지난 일들을 회상하며 웃음을 지어보였다.
내가 아지나 할아버지에게는 그때 다 말하지 못했지…


할아버지랑 백성들이 함께 도우려고 왔소이다.
그럼 저기 나타났던 군사들이 바로? …
아, 이제야 숨이 나가는구나. 고맙소! 아지.
그런데… 조용히 말씀드릴게 있나이다.
잠간 물러들 가라! 일이 있을 때 다시 부르겠다.
알겠소이다!


뭐라구? 그럼 우리 성안에 적과 내통한 렴탐군이 있다는거요?
그런것 같나이다. 아까 달아난 그놈이 성문을 열었다고 했소이다.
그놈을 사로잡아야 하는건데… 그놈을 알아볼수 있소?
알아볼수 있소이다.
어느때든 네놈을 꼭 찾아내여 그 정체를 발가내고야말테다. …


여봐라- 수비장과 여러 장수들은 각 성문의 경비를 강화하며 이상한 일은 급히 나에게 아뢰도록 하라. 그리고 신호로 불화살 한대를 날려라!
예잇-


아지는 좀 쉬오. 내가 부르겠소.
알겠소이다.
계수는 성의 경비를 철통같이 하는 한편 장수들에게 령이 떨어지면 적의 배후를 치도록 하였다.


한편 경당무사들과 백성들
보시오이다. 저기 불화살신호가 오르고있소이다.
때를 놓치지 말고 모두 공격하라!


알겠소이다.


쫓기는척 하면서 두패로 갈라졌던 경당무사들과 백성들이 다시 반격한다.






푹!
얏!
불의의 반격에 준비도 갖추지 못했던 수많은 외적은 갈팡질팡하며 무리죽음만 당하였다.


발기의 진
아직도 추장의 군사들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오지 않았소이다. 웬 일인지 추장의 군사들은 고개를 넘어갔소이다.
무슨 소릴 하는거냐.
제가 직접 보고 돌아오는 길이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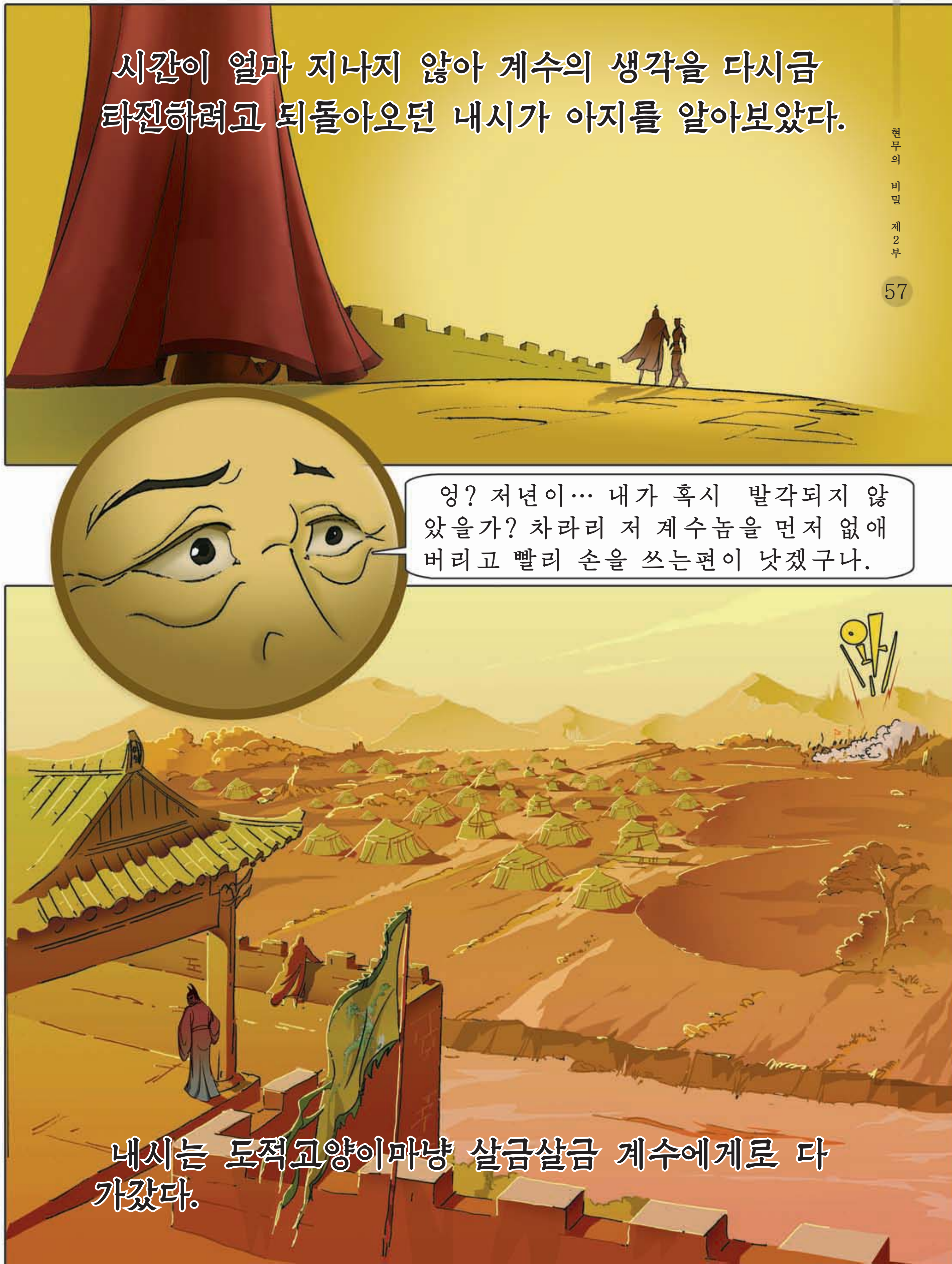

혹시 이것들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게 아니야?
발기는 추장의 군사들이 간 곳을 바라보며 몹시 불안해하였다.
추장이 혹시 자기 군사를 퇴각시키려고 그러는게 아니오이까?
뭐라구?
그럼 큰일이다.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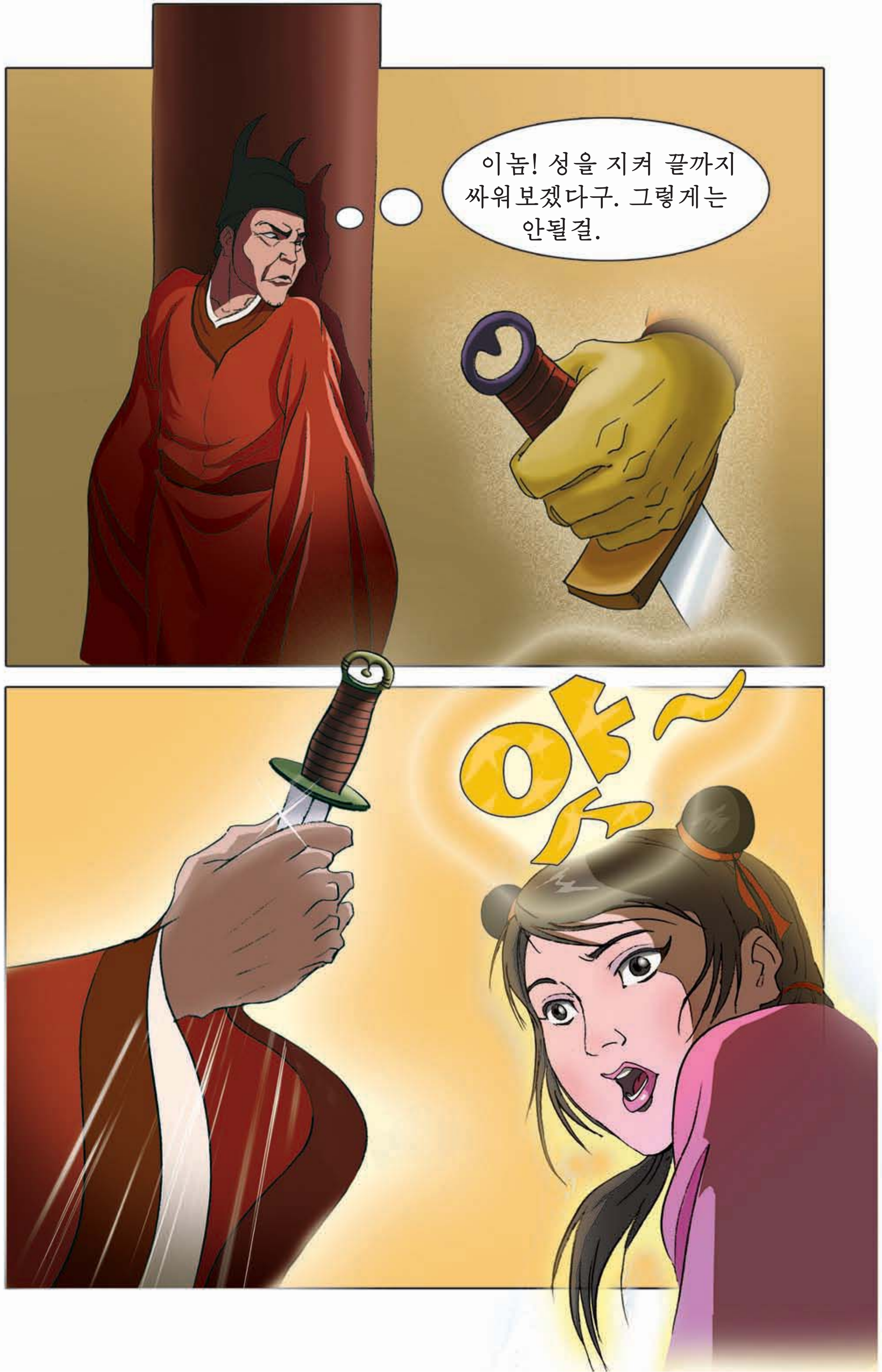

한편 성으로 연우와 내시가 함께 나타났다.
새로 나타났던것들이 경당무사들패라면서?
그렇소이다. 어떻게 그 일을…
나는 임금이다. 임금이 모르는게 있느냐?
그래서 지금 성문을 내리고 출전하여 따로 떨어진 발기의 무리를 먼저 족치고 경당무사들과 협공을 들이댈가 하나이다.


아니다.
그냥 놔두어라!
발기와 경당무사들이 저희들끼리 싸우게 놔두라. 우린 그 사이에 힘을 키워야 한다. 우리는 성만 끝까지 지키면 되니까!
아니 그건…


궁성으로 돌아가는 연우와 내시를 지켜보는 계수의 마음속에는 불이 이는것만 같았다.
연우와 함께 돌아가는 내시를 자세히 살펴보던 아지는 생각에 잠긴다.
그때 만났던 렵탐군놈의 모색과 신통히도 같아 보이는데…


금방 임금과 함께 왔던 저 사람은 누구오이까?
궁중의 내시요. 왜 그러오?
암만 생각해봐도 아까 맞다들렸던 그 렴탐군놈이 틀림이 없는것 같소이다.
뭐라구? 그게 확실하오?
아직은 이 일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야겠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계수의 생각을 다시금 타진하려고 되돌아오던 내시가 아지를 알아보았다.
엉? 저년이… 내가 혹시 발각되지 않았을가? 차라리 저 계수놈을 먼저 없애버리고 빨리 손을 쓰는편이 낫겠구나.
와
내시는 도적고양이마냥 살금살금 계수에게로 다가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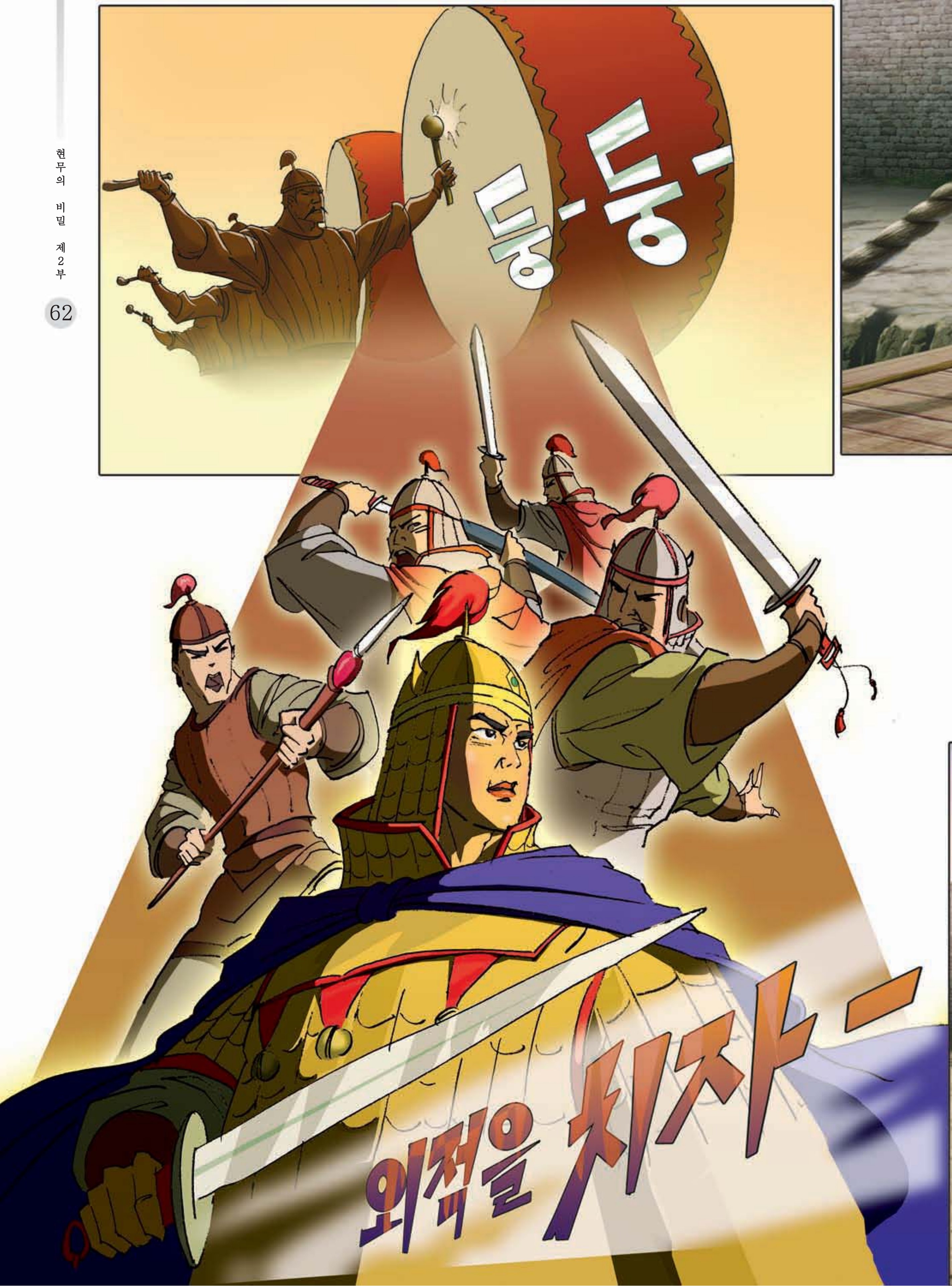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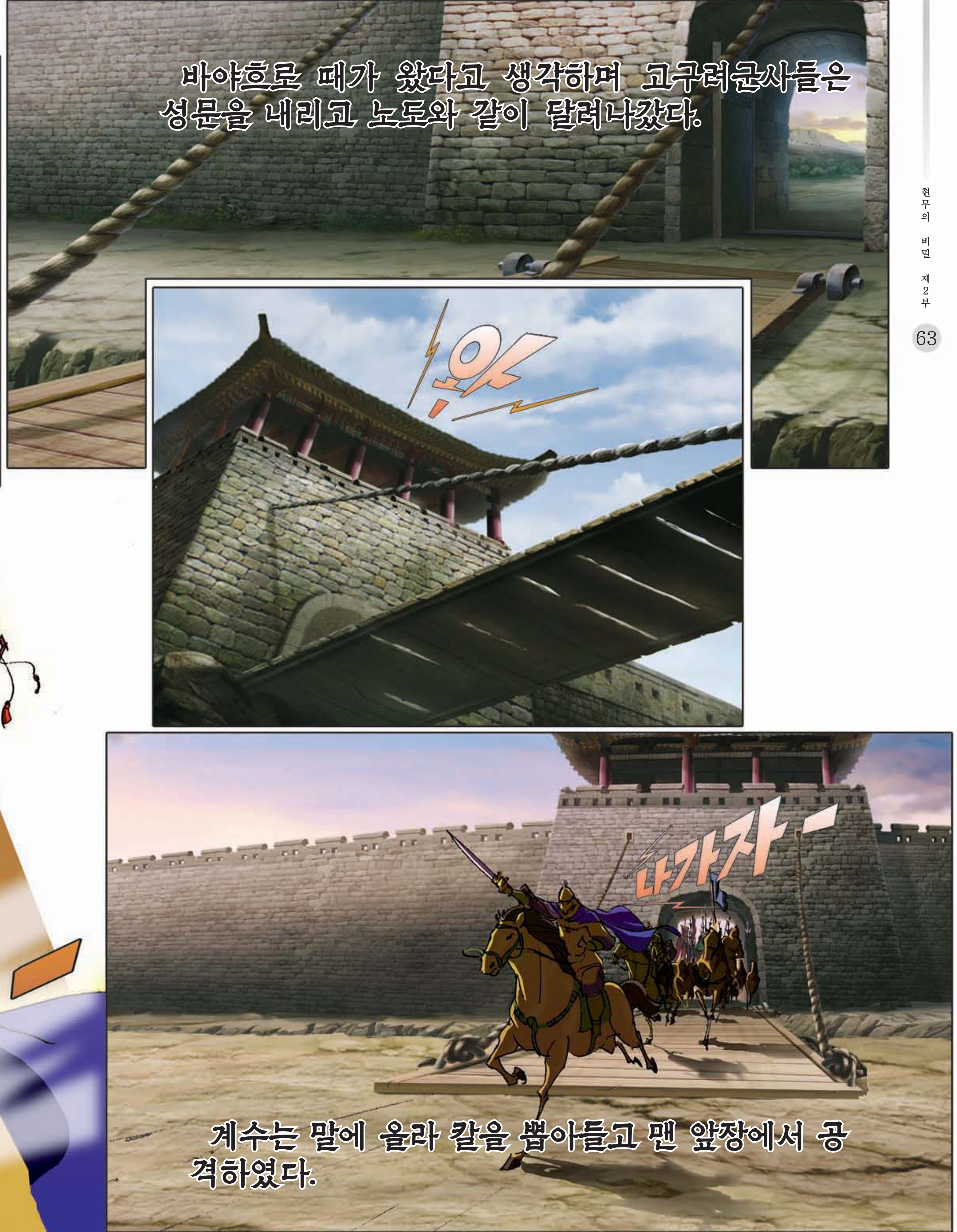


뒤늦게 발견한 아지가 자기 몸으로 계수를 막아나섰다.




이 원쑤놈아!
내 칼 받아라!
으악-
계수의 칼에 맞은 내시놈은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말았다.
아지- 아지-
내 걱정은 말고 어서 외적을 쳐야 하오이다. 빨리 나가서 합세해야 놈들을 …
아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말을 하고는 의식을 잃었다.


둥-둥-
외적을 치자-


바야흐로 때가 왔다고 생각하며 고구려군사들은 성문을 내리고 노도와 같이 달려나갔다.
와
나가자-
계수는 말에 올라 칼을 뽑아들고 맨 앞장에서 공격하였다.


핑-
고구려군사들의 드세찬 공격앞에 적들은 무리로 쓰러졌다.
으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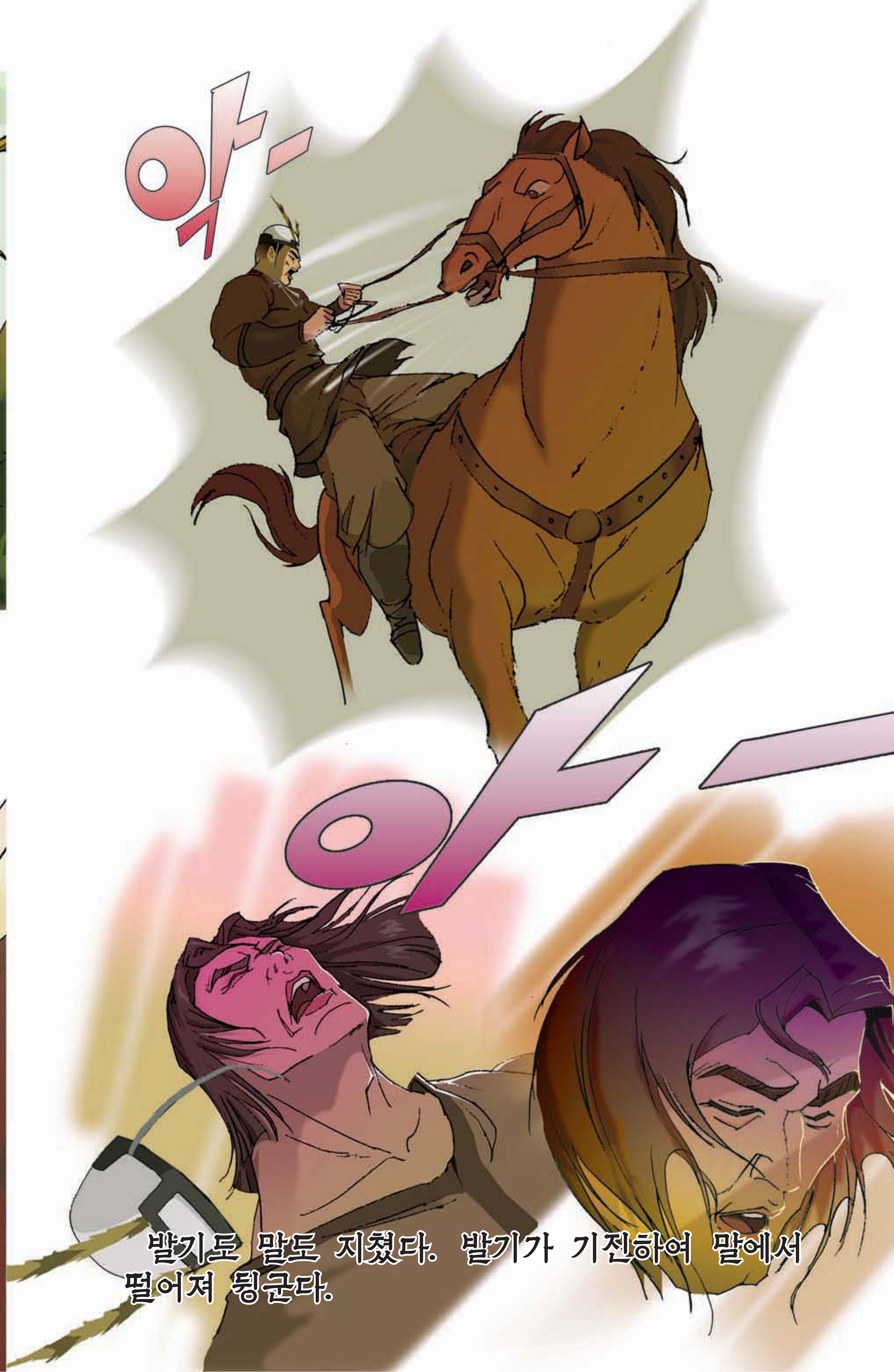

악
합세하는 경당무사들속에서 계수가 아지의 할아버지를 알아보았다.
정말 고맙소이다.
아니오이다. 외적을 치는것은 이 나라 백성들의 본분이옵니다.


전세는 발기에게 불리해졌다. 차츰 밀리던 발기는 외적을 따라 도망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당신네 군사들은 비겁하오.
뭐라구? 우리는 네놈때문에 참패를 당했다.
나때문이라구? 내가 모를줄 알구? 네놈들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있었는지…
좋다. 그럼 이제라도 너 혼자 어디 맞서봐라!
내가 어리석었다. 어리석었어. 저런 놈들에게 그 무슨 기대를 걸다니…


발기도 절망에 빠져 허겁지겁 달아나다가 뒤를 쫓는 군사가 계수임을 알자 지친 말을 멈춰세우며 소리친다.


계수야, 네가 기어코 이 형을 죽이려느냐?
죽음이 아니고서야 형이 진 죄를 무엇으로 갚겠소. 역적에게 딴길이 없다는것을 그리도 몰랐단 말이요?


악-
야-
발기도 말도 지쳤다. 발기가 기진하여 말에서 떨어져 뒹군다.


형님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고구려왕자로서 부끄럽지도 않소?
계수는 왈칵 칼을 뽑아들고있으면서도 차마 형을 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계수야, 날 용서해라. 난 옥좌가 탐나고 제 형까지 몰라보는 연우! 그놈이 싫어서…


형님도 고구려사람이 분명한데 한때의 분한 생각에 못이겨 외적을 끌어들여 제 나라에 칼끝을 돌리다니 이게 무슨 꼴인가 말이요? 형님을 누가 용서하겠소. 고구려의 백성들이 형님을 용서하지 않을거요.


이 미련한 놈아..
발기는 시꺼멓게 흐린 하늘을 쳐다보며 가슴 찢어지는듯한 울부짖음을 터뜨리였다. 지난 일들이 머리속에서 순간적으로 되새겨졌다.


이놈이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이제 무슨 낯으로 돌아가신 선조와 부왕의 얼굴을 대한단 말이냐.
꽈릉-


계수야, 내 갈길을 이미 정했으니 잘 가거라. 부디 있는 힘을 다해 고구려를 받들어다오.
발기는 후회하는 자기를 보고 한숨을 쉬며 무겁게 돌아서는 계수를 넋없이 바라보았다.


눈물을 흘리며 정처없이 떠나는 발기의 풀어헤친 머리며 옷주제가 람루하다.


아득히 멀어지는 형의 모습을 바라보는 계수의 눈에도 뜨거운것이 두볼을 타고 흘러내리고있었다.


발기는 쏟아지는 비
속으로 미친듯이 말을
몰아 달려갔다.
으흥-


지친 말은 더 견디지 못하고 꼬꾸라져서 죽
고말았다.
아! 말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바로 여기가 내가 죽을 곳인게로구나!




발기는 한마디 부르짖더니 칼을 빼들고 자기 목을 베고 쓰러졌다.


선봉장님, 발기가 자결했소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이까?


아! 불쌍한 형님. 늦게나마 이 나라 사람된 큰뜻을 깨우치고 갔으니 사람들이 후세에라도 형님의 죽음을 길이 교훈삼을것이오이다.


계수는 형의 시체를 안아다 묻고는 군사를 이끌고 비감에 잠겨 귀로에 올랐다.


고구려군사들과 경당무사들의 개선대오가 승리의 희열에 넘쳐 입성하고있다.




여봐라! 이번 싸움에서 공을 세운 계수선봉장과 여러 장수들 그리고 경당무사들을 불러들여라! 과인이 그들을 위해 은총을 베풀겠노라!
연우는 더없이 기뻐하면서 개선하는 계수와 여러 군사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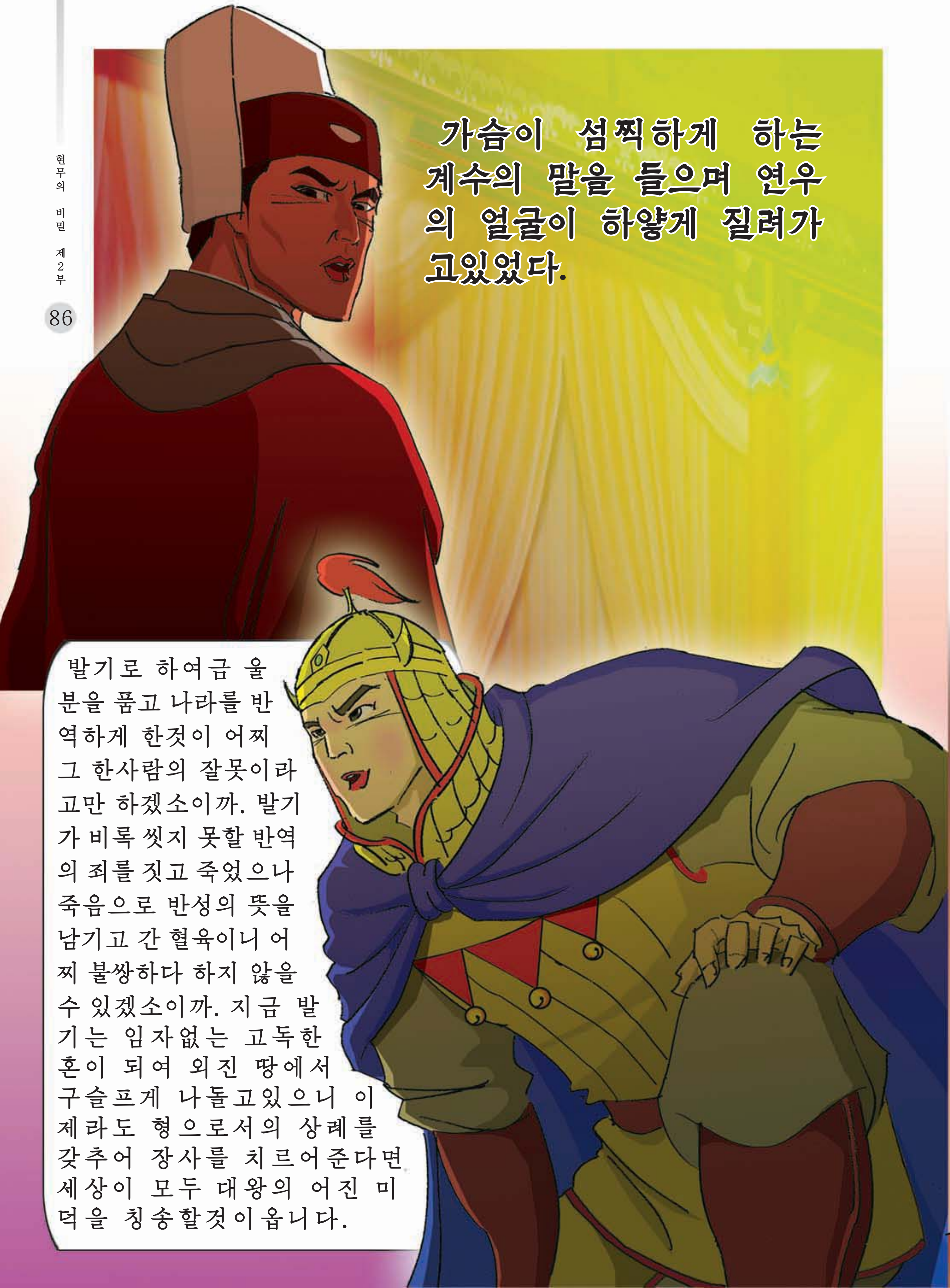

부웅— 부웅—


풍악소리가 울리고 풍성한 음식이 앞에 놓였지만 계수의 마음은 무거웠다. 더구나 분란을 평정한 안도감에 도취하여 형의 죽음을 조상하는 빛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연우를 눈앞에 보자 가슴속에서는 말 못할 울분이 치밀어오르고있었다.
계수의 동정을 살피고있던 연우는 큰 뿔잔에 향기로운 술을 부어들고 천천히 다가왔다.
이번 싸움에서 그대가 세운 공로가 큰것이기에 이 잔을 내리는것이니 사양말고 어서 들거라.


계수는 할수없이 술잔을 받아들기는 하였으나 마실 생각은 없었다.
저는 차마 이 술을 마실수 없소이다.
네가 또 발기를 생각하는것이 아니냐? 발기는 역적이다. 너는 어째서 역적의 장례를 치르어주었느냐? 나라의 역적을 동정하는자는 같은 역적이라는것을 너는 모른단 말이냐?
알고있었소이다.


너는 국법에 따라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벌을 받겠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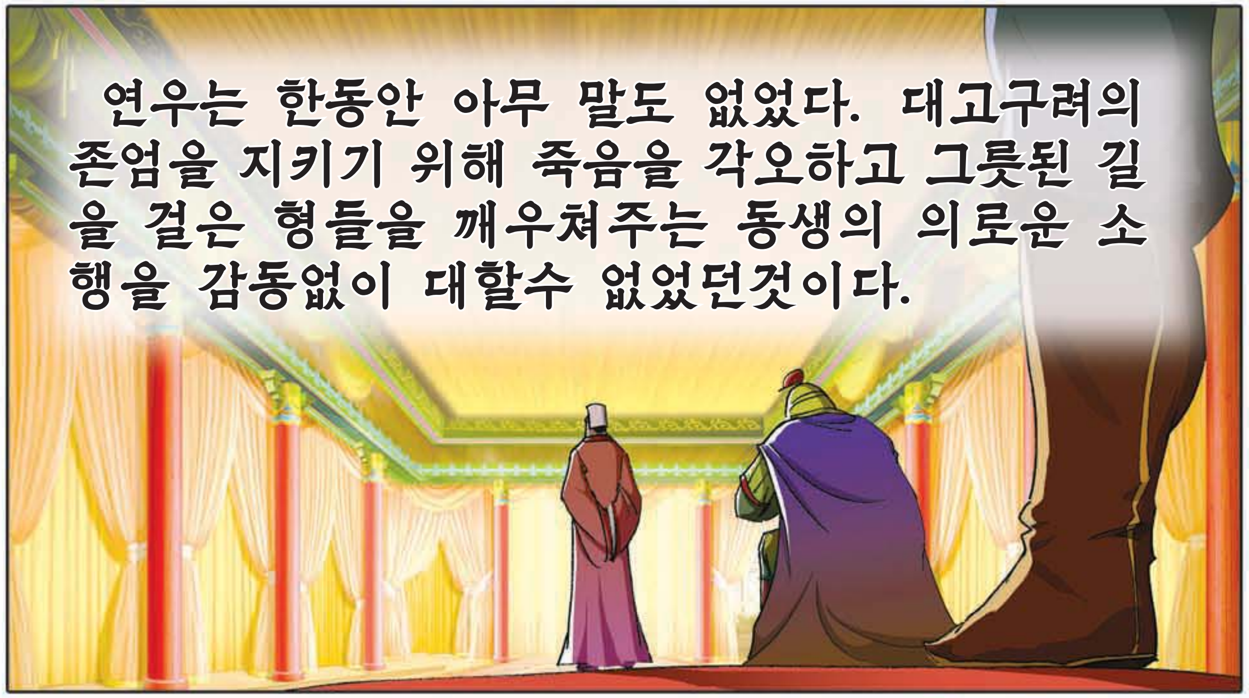

패씸하고 방자하다. 이번 싸움에서 세운 공으로 보아 관대히 너를 용서하려 했지만 네가 나로 하여금 다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구나.
여봐라, 계수를 잡아내리라.
계수는 드디어 마음을 다잡고 왕의 발치에 다시 엎드리였다.
제가 지금 대왕님앞에서 한마디 말만 하고 죽기를 바랍니다. 페하, 전날 왕후가 비록 선왕의 유명으로 대왕에게 왕위를 잇게 하였지만 대왕께서는 손우형에게 례절로써 삼가 양보하지 않았으니 벌써 형제간의 의리를 잃었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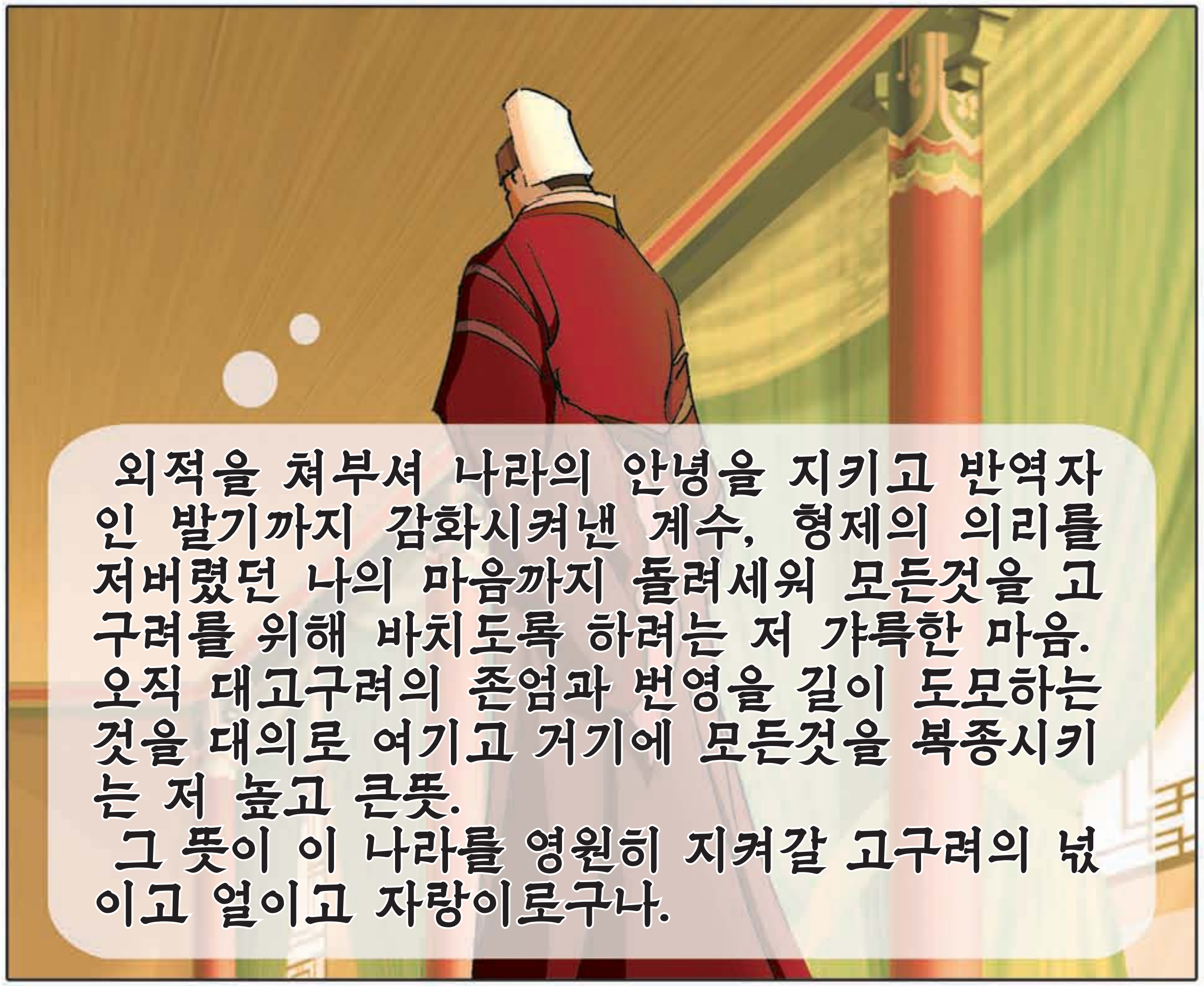

가슴이 섬찍하게 하는 계수의 말을 들으며 연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있었다.
발기로 하여금 울분을 품고 나라를 반역하게 한것이 어찌 그 한사람의 잘못이라고만 하겠소이까. 발기가 비록 씻지 못할 반역의 죄를 짓고 죽었으나 죽음으로 반성의 뜻을 남기고 간 혈육이니 어찌 불쌍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소이까. 지금 발기는 임자없는 고독한 혼이 되여 외진 땅에서 구슬프게 나돌고있으니 이제라도 형으로서의 상례를 갖추어 장사를 치르어준다면 세상이 모두 대왕의 어진 미덕을 칭송할것이옵니다.


대왕께서는 부디 대고구려의 임금이고 대고구려의 존엄높은 아들임을 잊지 말기를 바라옵니다. 신이 참람하게도 감히 이런 말을 아뢰였으니 이제는 죽음을 당하여도 한이 없사옵니다.
죄송하오나 대왕님께서는 넓게 살펴주시오이다.
넓게 살펴주시오이다.


머리를 돌리고 동생의 절절한 말을 듣고있던 연우의 하얗게 질린 얼굴에는 한줄기 감동의 빛이 스쳐지나갔다.
그래 할 말을 다했느냐?
죽음을 각오하고 할 말을 다했으니 청컨대 나가서 형벌을 받겠소이다.


이때 무관이 급히 들어왔다.
대왕님께 아뢰여! - 그동안 사로잡은 놈에게서 알아본데 의하면 내시 그놈이 변방족 추장과 내통하였다고 하오이다. 그놈은 대왕님을 유인하여 추장에게 끌고 가려 하였다고 토설했소이다.
뭣이? 아- 그러니 이때껏 그놈의 작간으로 내가… 아- 내가 무슨 일을 칠번 하였는가?


연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대고구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그릇된 길을 걸은 형들을 깨우쳐주는 동생의 의로운 소행을 감동없이 대할수 없었던것이다.


외적을 쳐부셔 나라의 안녕을 지키고 반역자인 발기까지 감화시켜낸 계수, 형제의 의리를 저버렸던 나의 마음까지 돌려세워 모든것을 고구려를 위해 바치도록 하려는 저 갸륵한 마음. 오직 대고구려의 존엄과 번영을 길이 도모하는것을 대의로 여기고 거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저 높고 큰뜻. 그 뜻이 이 나라를 영원히 지켜갈 고구려의 넋이고 얼이고 자랑이로구나.


그대야말로 대고구려의 자랑이고 이 나라 왕실의 자랑이로다. 의로운 동생을 둔것은 또한 과인에게도 큰 자랑이로다!


여봐라! - 발기를 마땅히 왕족의 례식을 갖추어 장사지내도록 하라!





성벽우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연우의 눈가에도 눈물이 어렸다.



계수는 분란을 평정한 후에도 경당무사들을 묶어세워 고구려를 빛내이기 위하여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이렇듯 신대왕의 아들중에는 력사에 오점을 남긴 사람도 있었고 대대로 전승되여오는 대고구려의 애국정신을 구현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는데 기여한 사람도 있었으니 그들은 다 제나름대로의 교훈을 력사에 길이 남기였다.

고구려가 자기 력사의 전 기간 동방에 그 위력을 떨치며 승승장구하였던것은 실로 나라의 존엄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였던 고구려인민들의 애국정신에 바탕을 둔것이였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 동천왕으로부터 보장왕에 이르기까지 고구려가 천년동안 동방의 제일강대국으로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온 세상에 널리 떨치였던것도 바로 이 애국정신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상식 고구려벽화무덤(사신도)

옛날 사람들은 별들이 널려있는 모양을 따서 동쪽에는 청룡, 서쪽에는 백호, 남쪽에는 주작, 북쪽에는 현무 등 네개의 환상적인 동물들을 상상해내고 네 방면을 지키는 신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고구려벽화무덤인 강서세무덤에 그려진 청룡, 백호, 주작, 현무로 표현된 이 사신들은 환상적인 동물로서의 특징들을 잘 살려내고있을뿐아니라 강한 기백과 살아움직이는듯 한 동적인 느낌을 주는 점에서 특색을 가진다.

우리 나라 사신도의 유산들은 형상창조의 높은 예술적수준으로 하여 세계미술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상식 창



우리 나라에서 창은 고구려시기에 크게 발전하였다. 그것은 고구려인민들이 나라의 발전초기에 진행한 전쟁들에서 가까운 거리 기마전법에 많이 의거하면서 육박격투무기의 발전에 큰 힘을 돌린 결과였다. 고구려의 창끝에는 뾰족창끝, 넙적창끝, 두가닥창끝이 있었다. 뾰족창끝에는 단봉형, 쌍날칼형, 버들잎형 및 긴 원추형 등이 있었으며 넙적창끝에는 도끼날형(끌날형)이 있었다. 고구려의 창대에는 짧은것과 긴것의 두가지가 있었다. 그가운데서 짧은 창은 모두 보병이 가졌으며 긴 창은 주로 기병이 가졌다. 고구려벽화무덤들에서 보면 고구려창의 길이는 2～3m가량이였다. 갈구리창도 있었다. 갈구리창은 특히 말을 탄 적을 끌어내리여 찌르게 되여있는 창이였다. 기마전을 많이 한 고구려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중무장한 적기병과의 전투에서 이 무기가 매우 유효하였다.



력사그림책 **현무의 비밀**

(제 2 부)

글	김호성
그 림	김윤일
편 집	김윤일
교 정	김철준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인 쇄	주체104(2015)년 6월 10일
발 행	주체104(2015)년 6월 18일

ㄱ-1274ㄷ

DPR Korea
ISBN 978-9946-31-021-3